

기독교 신앙, "오직 믿음(sola fide)"인 이유

사도신경

다함께

찬 송 397장

다함께

1. 주 사랑 안에 살면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 낼 것 없어라
2.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지혜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3.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걷혀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 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기 도

맡은이

성경봉독 요한복음 7:17~18

다함께

¹⁷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
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¹⁸스스로 말
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Ⅰ 삶 나누기

한 주간의 삶과 QT, 특별한 감사의 제목이 있다면 간단히 나눕니다.

기독교 신앙, “오직 믿음(sola fide)”인 이유

2025.3.16. 주일예배 설교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던 이유”

공생애 기간 예수님은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그중 하나는 “그가 정말 메시아가 맞는가?” 하는 사람들의 의구심이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 당시 예수님의 모습은 사람들이 고대해 왔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라면 힘 있고 능력 있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셔야 하는데, 그는 연약한 한 아기의 모습으로, 또 지극히 평범한 한 시골의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예수를 가리켜 “어떤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무리를 미혹한다”(12절)며 수군거렸습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모습을 보고는,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15절)며 의아해 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당시 유대 땅 사람이었다면, 우리는 그들과 다를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과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경배할 수 있었을까요.

※ 사람들이 고대해 왔던 메시아의 모습과는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나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 하는가”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진정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열망과 소망이 있기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혹시 우선 들어보고 내 마음에 들면 따르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따르지 않으려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이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것들’을 정해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내 선입견에서 왔든 기호이든 크게는 사회적/문화적 상황이든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는, 나 스스로 정한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방인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에서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하시면 안 되는 말씀 중 하나였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이셔도 넘어오면 안 되는 자신들의 영역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즉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마음은 없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이 먼저일 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 나의 뜻이 우선할 때,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뜻을 말씀해 주지 않으십니다.

“진정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이란”

그러면 진정,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17절)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것(하나님의 뜻)이 좋은 싫든, 내 마음에 들든 들지 않든, 그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따르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18절)”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가리켜 “나를 보내신 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은 어떠한 일 앞에서도, 언제나 성부 하나님을 의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철저히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했으며, 오로지 나를 보내신 이(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에만 집중하셨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 입니다.

※ 예수님처럼, 그것이 그저 하나님의 뜻이기에 따르려는 사람입니다.

“‘믿음 + α(알파)’의 모습”

오늘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기의 뜻과 신념, 자신의 종교적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한 것처럼, 믿음 외에 또 다른 것을 끼워놓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α(알파)’의 모습입니다. 갈라디아 교회에 바울은 “오직 믿음(sola fide)”을 가르쳤지만, 이후 유입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만으로는 안 되고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이유는 있습니다. “오직 믿음”은 말이 쉽지만, 너무 추상적이고 관념적이기에, 막상 살아보면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α(알파)가 들어옵니다. 믿음도 가지고, 동시에 할례도 받으라고 합니다. 할례는 육체에 각인되는 것이니 구원의 확신을 가지기에, 더 쉽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믿음과 α(알파)는 처음에는 나란히 가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믿음은 없고 알파만 남게 됩니다. 바울이 볼 때, 이 α(알파)는 누룩입니다. 그럴 듯해 보이나 결국 우리의 신앙과 교회를 변질시키고 타락시키는 그 누룩.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그 자체를 행하려는 열망’입니다. 절대로 α(알파)가 믿음 옆에 나란히 들어서 있으면 안 됩니다.

※ 알파는 누룩과 같습니다. 절대 알파가 믿음 옆에 나란히 있으면 안 됩니다.

결론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온 마음을 다해,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것에, 자신의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마음에는 오직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과 신뢰, 소망밖에 없습니다. 때로 박수 받는 꽃길을 버리고 외로운 가시밭길을 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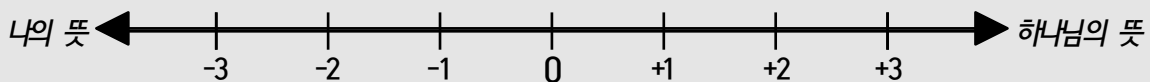
우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로 세워갈 자들로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오직 믿음으로(sola fide)!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로 견고히 서서, 이 거룩한 부르심에 응답하는, 거룩한 천국 시민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나눔

- ❶ 예수님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17절)이셨습니다. 이를 나타내며, 특별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가리켜, 또한 하나님을 가리켜 각각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공통으로 들어갈 말을 쓰세요. (p.3)

하나님 - “나를 ○○○ 이”	(보 내 신)
예수님 - “하나님께서 ○○○ 이”	

- ❷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십니까. 혹시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바라는 뜻을 더 우선하지는 않는지 정직히 돌아봅시다. 내 기도 상태를 점검하며 아래의 그래프에 점을 찍어보고, 구역원들과 나누어 봅시다.



- ❸ “오직 믿음(sola fide)”이면 됩니다. 그런데 나의 이 믿음을 증명하고자 믿음보다도 더 열심을 내고 있는 α(알파)는 없습니까. 각자 잠시 묵상해 보고, 주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싶은지 나누어 봅시다. 또한 기도제목으로도 표현해 봅시다.

- ❹ 그 외에 이번 공과가 주는 은혜, 위로, 격려, 혹은 도전이 있다면 나눠주시고 기도로 마무리합니다.